

금메달의 영광과 패자의 눈물

노영한(본회 전무이사)

아틀랜타 올림픽 게임의 막이 올랐다. 이번 올림픽은 근대올림픽 100주년이라서 뜻이 있고, 또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올림픽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올림픽의 본질은 경쟁에 있다.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은 바로 세계 최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영예이고 국가의 위상도 높여준다. 국력은 체력이라고 해서 올림픽 금메달 수가 마치 국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경쟁적 존재이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30분 벽을 돌파했지만, 이제는 2시간 10분대의 선수가 수두룩하다. 경쟁을 통해서 기록이 단축된다. 물론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 그래서 경기에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다.

경쟁 상대자는 적이 아니고 자기 발전을 가져오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올림픽은 경쟁의 관계와 함께 우정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인간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아우 아벨과의 경쟁에서 패하자 그를 살해하고 만다. 그러나

그는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패자가 되어 사람들을 피해 멀리 떠나게 된다. 잘못된 경쟁의 식은 살인을 부르게 된다.

WTO체제의 출범은 국가간, 국내간 무한 경쟁을 강요받게 된다. 경쟁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렇다고 독과점이나 정부의 보호 아래 있을 수만은 없다. 특히 국제간의 경쟁에서는 마치 올림픽에서 농구나 대부분의 육상에서처럼, 우리의 체력이나 신체적 조건 등이 노력해도 어려운 종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도 어려운 품목들이 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농축산업이 이에 해당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WTO체제가 국제간에 공정거래를 앞세우고 있지만, 라인홀드-니버의 말대로 개인은 도덕적이라 하여도 국가란 사회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식량의 무기화나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양돈은 국제경쟁력이 있으므로 노력만 하면 경쟁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어야 함

에는 틀림없다.

몇일 전 모 일간지에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대처하는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회사인 도요다와 마쓰다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경영전략의 차이로 도요다는 경영합리화에 성공한 반면, 마쓰다는 미국의 포드사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물론 마쓰다는 환경 변화를 예상 못하고 무리한 투자확대 등을 대부분 차임금에 의존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결국은 경영권이 포드에 넘어갔다. 반면, 도요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기분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무리하지 않은 안정적 투자로 위기를 타개하였다.

최근 우리 양돈업계를 보면, 차임금에 의한(물론 정부의 융자이지만) 무리한 투자를 하고, 최근의 양돈경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기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농가들을 보게 될 때마다 마쓰다 자동차를 생각하게 한다.

이제 돼지고기의 완전개방이 11개월후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이미 개방된 냉장돼지고기가 시험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경쟁이란 세계 챔피언이 국내에 와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홈그라운드 이점과 심판의 봐주기로는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경쟁에서 이기는 품목이 많아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다. 품목에 따라서는 원정경기를 치러야 하기도 하는데, 양돈의 경우에는 일본시장에서의 경쟁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함께 해야 하며 이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고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사료, 동물약품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같은 짐을 지고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다. 무거운 짐들을 벗고, 우리가 괴롭지만 돼지고기의 자급률을 정하고, 앞으로 경쟁에 나갈 선수를 육성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훈련이 필요하다.

지난 3개월간 양돈농가는 9%인 3,743호가 감소하였는데, 8월 이후의 사료가격 동향과 최근의 무차별적인 분뇨처리 단속 등은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지만, 준비없이 당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유능한 심판은 경기의 흐름을 보아 경기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경기의 맥을 끊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경기를 운영해 간다.

무차별적인 구속과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돈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되겠다.

최근까지 계속되어지는 자돈하리로 인한 자돈 폐사, 아직도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등 개방을 앞두고 우리가 시급히 해결하고 보완해야 경쟁에서 이길 항목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의 양돈업은 미국, 캐나다, 덴마크 선수들과 겨루어 금메달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사격 등 일부 종목이 금메달을 지나치게 낙관하였다가 탈락하는 것을 보면서 비정한 경쟁의 세계를 보게 된다.